

JTBC
KBS
MBC
SBS
MBN
YTN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세계일보

가짜뉴스, 탄핵을 선동하다.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사기탄핵의 진실

2018년 11월

 대한애국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

지켜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제 국민이
진실과 정의를 위해 투쟁합니다.



목 차

발간사

— 가짜뉴스에 의한 대통령의 인격말살!
누가 이 땅에서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1. 주진우야! 섹스 테이프 내 놔!
2.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대통령의 딸로 조작, 선동
3. 청와대가 비아그라를 구입했다는 가짜보도
4. 청와대 굿판은 거짓선동이였다.
5. 억측으로 만든 세월호 7시간 동안의 올림머리 허구성

— 가짜뉴스가 만들어낸 국정농단!
대통령을 쓰러뜨리고, 대한민국을 삼켜버렸습니다.

6. 태블릿 PC, 도대체 누구 것입니까?
7. 최순실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해외순방한 적이 없다.
8. 대통령 경호실이 최순실을 경호했다고?
9. 최순실을 선생님으로 불렀다는 가짜보도
10. 통일대박이라는 표현이 최순실의 아이디어라는 가짜보도
11. 최순실 아들이 청와대에 근무했다고?
12.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옷값을 냈다는 가짜보도

— 가짜뉴스!
이것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13.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스포츠마사지센터 원장이라고?
14. 최순실의 재산이 300조 원이나 된다고?
15. 미국대사관은 촛불집회를 지지한 적이 없다.

결 어

참고 자료

발 간 사

희생과 헌신으로 건국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헌법을 수호하며 진실과 정의로 지켜온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거짓과 불의의 세력들이 국민을 속이고 기만했습니다. 가짜뉴스 보도와 불법 여론조작으로 국가 체계를 무력화시키며 거짓불법 탄핵과 권력 찬탈을 감행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음해했던 모든 언론보도와 소문들이 가짜와 허위로 밝혀진 지금까지도 이미 상실된 법치의 탈을 쓰고 헌법과 국가정체성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인신 감금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속박하고 보수우파를 붕괴시키겠다는 좌파 독재정권의 만행과 망상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뉴스로 만든 가짜 정권이 더 이상 가짜 정책과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짓과 조작으로 시작된 가짜들의 잘못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왜곡된 역사와 자유민주주의가 상실된 암울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정의를 바로 세울 책무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짜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잘못 꺾어진 단추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가짜뉴스 조사와 처벌부터 시작해야 하며 다시 진실과 정의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허위와 왜곡으로 밝혀진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언론 보도를 근거로 탄핵소추한
국회도 예외일 수 없고 가짜뉴스를 검증 없이 편향보도한 언론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언론방송이 편향보도와 비보도로 인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열리는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구국투쟁이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또 다른 형태의 가짜뉴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진실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태극기 애국투쟁에 동참하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실과 정의는 가짜 정권의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대한애국당은 진실과 정의로 바로 서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대한애국당



#카더라

#아님말고

가짜뉴스에 의한 대통령의 인격말살!

누가 이 땅에서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01 주진우야! 섹스 테이프 내 놔!

2016년 11월 27일, <뉴스프로>는 인터넷 팟캐스터로 널리 알려진 주진우가 (박근혜 대통령의) 섹스 관련 테이프가 나올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다는 것을 보도하였다. 과연 진실일까?

보도 내용

2016년 11월 27일 대안언론인 <뉴스프로>는 일본 와세다대학의 오쿠마 대강당에서 2016년 11월 25일에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주진우가 비아그라와 마약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섹스 관련 테이프가 나올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많은 언론들도 주진우의 발언을 보도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적인 성생활을 즐기는 사람인 것처럼 터무니없이 조작된 이미지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확인 결과

어떤 언론도 섹스 테이프가 나올 것이라는 주진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보도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섹스 테이프도 발견되거나 공개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주진우가 섹스 테이프에 이어 앞으로 터질 것이라고 말한 병역비리나 국방비리도 터지지 않았다.

주진우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인격에 먹칠을 하는 발언을 하고, 언론은 아무런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를 보도하였던 것이다.

02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대통령의 딸로 조작, 선동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이화여자대학교 부정입학 의혹이 터지자
정유라 씨가 박근혜 대통령 딸이라는 루머가 퍼졌다. 과연 이 루머는 사실일까?

보도 내용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할 당시에 특혜를
받아 부정입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유라 씨가 최순실 씨의 딸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딸이라는 루머가
유튜브를 중심으로 널리 퍼졌다. 많은
언론들도 이러한 루머가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였다.

예를 들면 2016년 12월 21일 자
한겨레신문에는 김의겸 기자가 자신의
칼럼을 통해 자신도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의 딸이라는 소설 같은 설정에
빠져들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확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1월 25일에
있었던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의 딸이라는 루머에 대해
끔찍하고 저질스러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최순실 씨도 헌법재판소 증언에서 출산
기록을 보면 정유라씨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

한겨레신문의 김의겸 기자도 정유라 씨의
중, 고등학교 시절의 사진이 최순실 씨와
너무나 닮았고 또 1996년 최순실 씨가
유치원 원장이었을 당시 배부른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듣고 이 루머가
거짓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결혼을 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유라라는 딸을 출산하였다는 거짓된
루머는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문란한
사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조작된
이미지를 유포시켰던 것이다.

청와대가 비아그라를 구입했다는 가짜보도

SBS를 포함한 많은 신문, 방송들은
청와대가 비아그라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약품을 구입했다고 보도하였다.
과연 사실일까?

03

보도 내용

2016년 11월 23일 SBS는 청와대가 남성용 성 기능장애를 치료하는 약품인 비아그라 그리고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과 거의 비슷하여 마약류로 취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수면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 등의 약품을 구입하였다고 보도하였다. SBS를 비롯한 많은 신문과 방송들은 동일한 내용의 보도를 쏟아냈다.

이러한 보도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성생활과 관련된 추잡한 의혹과 마약을 복용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보도들은 다른 의혹 보도들과 맞물려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조를 하였다.

확인 결과

2016년 11월 24일 청와대는 의무실장 명의의 참고 자료를 배포하여 비아그라는 청와대 직원들의 고산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한 선택 약제이며, 에토미데이트는 기도 폐색이나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약품들은 사용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용량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산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구입한 비아그라를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성생활을 위해 구입한 것이라는 억측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를 터무니없이 실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무속에 빠진 대통령 소문에 국민들의 불신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무속에 빠져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고 소문을 내면,
사람들은 대통령을 경멸할 거야.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줘도
이미 사람들은 그렇게 믿겠지."

그래서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굿을 한다는 소문을 냈고,
무속에 빠진 대통령 소문에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굿판은 거짓선동이다.

04

많은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굿판을 벌였다거나
무속에 빠졌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과연 이 보도가 진실일까?

보도 내용.

2016년 11월 11일 MBN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린이날에 어린이들에게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말을 한 것이 최순실 씨가 믿는 종교가 관료사회까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이재정 의원의 말을 보도하였다. 우주가
도와준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무속신앙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러한 의혹이 확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굿판을 벌였다는
억측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확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다 같이 도와준다.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발언은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발언은 무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브라질의 문호인 파울루 코엘류의
소설 <연금술사>에 나오는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4월 브라질을
방문했을 때에도 이 말을 하였다. 브라질을 방문하여 브라질의 문호의 책을
인용하는 발언을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많은 언론들은 이 발언이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무속에 빠진 결정적인
증거인 것처럼 보도하였다.

억측으로 만든 세월호 7시간 동안의 올림머리 허구성

05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강남의 유명 미용사를 청와대로 불러 올림머리를 하느라
사고대책을 마련하는 데 90분 이상을 허비했다는 보도는 사실인가?

보도 내용

2016년 12월 6일 <한겨레신문>은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수습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강남의 유명 미용사(정모
원장)를 청와대로 불러 올림머리를 하는
데 90분 이상을 허비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해당 미용사는 4월 16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대통령의 머리를 손질하기
위해 청와대로 급히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오후 예약을 모두 취소하고 1
시간쯤 걸려 청와대로 들어가서 90
분가량 대통령의 올림머리를 했다는 것이
보도 내용이었다.

확인 결과

청와대는 대통령의 머리 손질과
메이크업을 담당하기 위해 청와대
출입증을 발급받은 2명의 계약직 중 한
명이 정모 원장이며, 정모 원장은 2014년
4월 16일 오후 3시 20분부터 약 1
시간가량을 청와대에 머물렀으며
올림머리를 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20
분 정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당일 오후 1시쯤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90분 가량 올림머리를 했다는
보도 내용은 허위 보도라는 것이
밝혀졌다. 결국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올림머리를 하느라 적절한
사고 수습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은
완전히 날조된 것이었다.

가짜뉴스가 만들어낸 국정농단!

대통령을 쓰러뜨리고, 대한민국을 삼켜버렸습니다.

국정농단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단순 지인에 불과했던 최순실.

사실 국민이 가짜뉴스의
암묵적 공범자였던 것은 아니었을까?

06

태블릿 PC, 도대체 누구 것입니까?

최순실 씨의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 PC에 연설문을 포함한
청와대의 핵심 문건들을 수정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과연 이 보도는 사실일까?

2016년 10월 24일 JTBC는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를 입수하였다는 것, 태블릿 PC 속에는 드레스덴 연설문을 포함한 44개의 연설문과 청와대의 다수의 핵심 문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 연설문과 핵심 문건들이 최순실 씨 에 의해 수정되었다는 것 등을 보도하였다.

이 보도는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 보도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실시되었으며,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절차가 진행되었다.

이 보도가 탄핵정국을 불러온 뇌관이 되었던 것이다.



▲ JTBC가 태블릿 PC가 최순실의 것이라며, 최순실이 태블릿 PC로 셀카를 찍었다고 보도한 사진.
그러나 사진 원본에서는 최순실의 두 팔이 사진 속에 모두 찍혀 있다. 즉, 셀카 사진이 아니었다.

태블릿 PC는 누구의 것이냐?

확인 결과

태블릿 PC의 소유자로 알려진 최순실 씨는 일관되게 자신은 태블릿 PC를 사용할 줄도 모르고 해당 태블릿 PC가 자기 소유도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최순실 씨와 그 변호인은 검찰에 해당 태블릿 PC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검찰은 이 요구를 계속 거부하였다. 만일 해당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의 것이 아니라면, 태블릿 PC에 포함된 파일들을 기초로 구성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조작 사건인 것이다. 나중에 해당 태블릿 PC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 해당 태블릿 PC에 들어있는 최순실 씨의 셀카 사진이 사진 속 최순실 씨의 손의 위치로 판단할 때 최순실 씨의 셀카 사진일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들은 해당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해당 태블릿 PC에 대한 포렌식을 실시하였지만 최순실 씨의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지 못하였다. 한편 JTBC가 해당 태블릿 PC를 입수한 경위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놀라운 것은 검찰이 해당 태블릿 PC를 재판의 증거물로 채택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시발점이자 핵심적인 증거물이었던 태블릿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특검이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던 15개 항목에도 태블릿 PC와 관련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하면, 해당 태블릿 PC는 최순실 씨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것이며,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시발점이 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은 가짜뉴스에 기초한 조작 사건이라는 것이다.

07

최순실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해외순방한 적이 없다.

최순실 씨가 대통령 전용기인 ‘대한민국 공군 1호기’를 타고 여러 차례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동행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과연 사실일까?

2016년 11월 15일 채널A는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의 증언을 보도하는 형식으로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여러 차례 동행하였다고 보도하였다.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을 순방할 때 대통령 전용기에서 최순실 씨를 목격되었으며, 이전에도 몇 차례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동행한 것으로 안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확인 결과

대통령 경호실은 경호실장은 경호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직계가족 이외의 가족도 경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2013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의 아들을 경호하기 위해 이 숙소를 사용하였다고 밝혔다.

경호실은 이 숙소가 박지만씨 집과 박지만 씨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박지만 씨 아들을 등하교 시간에 한시적으로 경호할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밝혔다.

경호실은 이 보도와 관련하여 KBS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 청구를 하였고, KBS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경호실의 반론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확인 결과

청와대 대변인은 해당 보도가 나오기 전에 채널A 기자가 청와대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을 때 청와대 의전비서관실과 경호실에 탑승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최순실 씨가 탑승자 명단에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보안 패스가 있어야 하고 70여 명의 취재기자가 동승한 상태에서 비밀리에 최순실 씨가 동승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하였다.

한편 '대한민국 공군 1호기'의 탑승자를 관리하는 대통령 경호실은 이 보도로 인해 경호실의 명예가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밝히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위한 조정 신청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08

대통령 경호실이 최순실을 경호했다고?

대통령 경호실이 서울 청담동의 한 다가구주택을 임대하여 경호원을 상주시키면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고급 오피스텔에 거처를 두고 있던 최순실 씨를 경호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과연 사실일까?

2016년 11월 6일 KBS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2013년 4월 대통령 경호실이 서울 청담동의 한 다가구주택에 숙소를 마련하였고, 이 숙소는 2개 이상의 방과 화장실을 갖추어 2명 이상이 상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다. 이어서 KBS는 이 숙소의 길 건너편에는 숙소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정도 되는 곳에 최순실 씨의 숙소였던 고급 오피스텔이 있었다고 보도하였다. KBS는 마치 이 숙소가 최순실 씨를 경호하기 위한 시설이었던 것처럼 보도하였던 것이다.

09

최순실을 선생님이로 불렀다는 가짜보도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면서
사소한 것조차도 직접 판단하지 못하고 최순실 씨의 의견을 물어볼 정도로
아주 무능하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다. 과연 사실일까?

2016년 11월 28일 <동아일보>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일일이 최순실 씨의 의견을 물어보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보도하였다. 이 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를 선생님이로 부르면서 사소한 것조차도 본인이
직접 판단하지 못하고 최순실 씨에 의견을 구하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한다.
이어서 이 기사는 검찰 관계자가 어떻게 대통령이 이렇게 무능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한탄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이 보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무능하여 모든 일을 최순실 씨에게 의존하였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확인결과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선생님이로 호칭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검찰은 이 보도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검찰은 압수물의 내용은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파트에서 아주
제한된 극소수의 사람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수사팀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것은 이 보도 내용 자체가
허위 제보에 의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통일대박이라는 표현이 최순실의 아이디어라는 가짜보도

많은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용한 통일대박이라는 표현은 최순실 씨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라고 검찰이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하였다.
과연 이 보도가 사실일까?

10

2016년 11월 13일 SBS를 비롯한 많은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그것이 최순실 씨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라고 검찰이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하였다.
즉, 여러 언론들은 검찰이 통일대박이라는 표현은 최순실 씨가 문고리 3인방과의
회의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보인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것이다.

이 보도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에까지 관여했다는 잘못된
인식을 유포함으로써 이른바 최순실 씨에 의한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확인결과

이 보도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은 통일대박이라는 용어는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이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인 신창민 교수의 <통일은 대박이다>
라는 저서에서 나온 것으로 최순실 씨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2013년 6월 20일 제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간부위원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가 신창민 교수의 저서를 언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통일대박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밝혔다.

최순실 아들이 청와대에 근무했다고?

11

Q.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의 아들이
2014년 12월 말까지 청와대 5급 행정관으로
근무했다는 보도는 사실인가?

보도 내용

<시사저널>은 2016년 10월 29일 청와대 내부 정보에
밝은 한 인사가 최순실 씨와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후 5급 행정관으로
청와대 총무 구매팀에 근무하였다고 말하였고, 다른
한 인사는 최순실 씨의 아들의 실명까지 거론했다고
보도하였다.

이 보도는 최순실 씨 일가가 청와대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는 인상을 대중들에게 심어주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탄핵 반란 사태가
진행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확인 결과

2016년 10월 30일 청와대는 최순실 씨의 아들로 지목된 사람의 인사서류를
확인한 결과 당사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최순실 씨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해명하였다. 청와대에 근무하는 5급
행정관이 최순실 씨와 무관하다는 사실은 기본적인 사실 확인 절차만 거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보도는 이러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엉뚱한 사람을 최순실
씨의 아들로 지목하여 마치 청와대가 최순실 씨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던 것이다.

보도 내용

2016년 12월 8일 <조선일보>를 비롯한 많은 언론들은 전날 열린 최순실 씨 관련 청문회에서 고영태가 박근혜 대통령의 옷 100여 벌과 가방 30~40개의 비용을 최순실 씨가 개인 돈으로 지불했다고 증언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 보도는 검찰과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이른바 경제공동체로 묶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뒤집어씌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옷값을 냈다는 가짜보도

Q. 많은 언론들이 최순실 씨 관련 청문회를 보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옷과 가방 값을 최순실 씨가 냈다고 생각한다는 고영태의 증언을 보도하였다.

이 보도가 과연 진실일까?

확인 결과

청와대는 최순실 씨를 통해 구입한 옷과 가방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금을 정확하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최순실 씨도 2017년 1월 16일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대금을 직접 받았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검도 박근혜 대통령이 윤전추 행정관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 대금을 최순실 씨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윤전추 행정관은 2017년 1월 5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시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증언하였다.



A large indoor event, possibly a conference or banquet, with a high ceiling featuring a complex, checkered geometric pattern. Numerous people are seated at round tables covered with white cloths. In the background, a large, ornate building with many windows is visible. A small screen displays a presentation. The overall atmosphere is formal and professional.

가짜뉴스!

이것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최순실 씨가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최순실 씨가 단골로 다니던 스포츠마사지센터 원장이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과연 진실일까?

13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스포츠마사지센터 원장이라고?

보 도 내 용

2016년 9월 20일 <한겨레>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가 그 설립과 운영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있는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 자신이 단골손님으로 드나들던 스포츠마사지센터의 원장이었던 정동춘 씨를 앉혔다는 보도를 하였다. 이 신문에 따르면, 2016년 5월 13일 취임한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그 직전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운동기능회복센터라는 이름으로 스포츠마사지센터를 운영하였다는 것이다. 이 보도는 최순실 씨가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 자신의 단골 스포츠마사지센터 원장을 임명함으로써 최순실 씨가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깊이 개입한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널리 유포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국회 청문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이 운영하였던 운동기능회복센터는 스포츠마사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 <한겨레>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들은 서울대에서 스포츠의학을 전공하여 체육학박사를 취득한 사람이 재활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운동기능회복센터를 마치 스포츠마사지 업소인 것처럼 왜곡보도를 하였던 것이다. 이 보도는 스포츠마사지가 연상시키는 부정적 이미지를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움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확 인 결 과

보도 내용.

2017년 7월 26일 JTBC 뉴스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출연하여 최순실씨 일가의 은닉재산의 규모가 현재의 가치로 300조 원은 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안민석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자금 규모가 당시 가치로 8조9000억 원이고 지금 가치로는 300조 원이 넘는데 그것이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발언하였다. 이 발언과 보도는 최순실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엄청난 재산을 축적한 사람이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일종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하급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확인 결과.

안민석 의원과 그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자금이라고 한 300조 원(현재 가치)의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떠한 방법으로 보관되어 있는지 그 전모를 밝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 그 은닉재산이 최태민씨를 비롯한 최순실 일가에게 어떻게 이전되었는지를 밝히는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안민석 의원은 은닉재산의 전모를 밝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추측성 발언을 하였고, 언론은 아무런 확인이나 검증작업 없이 이 발언을 그대로 보도하였던 것이다.

300조 원이라는 재산은 세계 최고의 갑부에 속하는 빌 게이츠의 재산을 능가한다. 1993년 이후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재산을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의 감시망을 피해 은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300조 원에 달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의원의 발언을 그대로 보도하였다.

14

최순실의 재산이 300조원이나 된다고?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300조원에 이른다는 것을 암시하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발언이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다.

과연 이 발언이 사실일까?



미국대사관은 15 촛불집회를 지지한 적이 없다.

촛불집회 도중에 1분 동안의 소등행사가 있었는데, 주한 미국대사관이 이에 동참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과연 이 보도는 진실일까?

보도 내용

2016년 12월 4일 <중앙일보>는 전날 광화문에서 열린 제5차 촛불집회에서 1분간 촛불을 끄는 소등행사가 있었는데, 광화문광장 바로 옆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의 사무실도 이 시간에 맞춰 소등함으로써 촛불집회에 동참하였다는 보도를 하였다.

이 보도는 마치 미국 정부가 촛불집회를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유포시킨 것이다.

2016년 12월 5일 주한 미국대사관은 소등행사가 있었던 시점에 사무실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주한 미국대사관은 한국의 국내 정치에 관해 어떤 입장도 갖고 있지 않고 또 그에 관여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확인 결과

주한 미국대사관의 사무실이 그 시간에 소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소등된 것처럼 날조하여 미국이 촛불집회를 지지한다고 보도한 것은 언론의 기본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명백한 허위 보도이다. 또한 그것은 대사관은 주재국의 정치 현안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외교적 관례를 무시한 것이기도 하다.

결 어

가짜뉴스!

과연 누가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고 이용하였는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촛불 반란세력이 가짜뉴스를 생산하였고, 주요 언론들과 댓글 조작단이 가짜뉴스를 유포했으며, 촛불 반란세력이 국민 여론 선동을 위해 가짜뉴스를 이용하였다.

이렇듯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촛불 반란세력이 가짜뉴스를 동원하여 기획하고 선동한 불법사기탄핵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사기탄핵의 발단이 된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것도 촛불 반란세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가짜뉴스를 엮어서 조작해낸 사건이었다.

여기에 수록된 가짜뉴스의 사례들은 이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던 JTBC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도 가짜뉴스였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탄핵되어야 할 만큼 무능하고 타락한 사람이라는 거짓 이미지를 덮어씌운 것도 바로 가짜뉴스였다. 이렇듯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거짓과 불의에 의한 불법탄핵이었으며 그 시발점은 가짜뉴스였다.

대한애국당은 진실과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대한애국당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의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했는지를 밝혀낼 것이다. 그리고 가짜뉴스의 생산자와 유포자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 자료는 진실과 정의를 회복하려는 대한애국당의 힘찬 투쟁을 위한 중대한 결실이다. 애국 국민들은 이 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얼마나 사악한 것이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짜뉴스에 선동된 불법사기탄핵이었다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대한애국당은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계속할 것이다.

2018년 11월

대한애국당



참 고 자 료

언론을 걱정하는 포럼, 『바람보다 먼저 누운 언론: 탄핵정국 100일간의 기록』
(기파랑, 2017)

조갑제 외, 『언론의 난: 마녀사냥 인민재판 촛불 우상화 졸속 탄핵 오보와 왜곡』
(조갑제닷컴, 2016)

김태완·이상훈, “특검·헌재 판결로 본 최순실 사태 10대 의혹보도 검증”
『월간조선』 2017년 4월호

박주연, “대통령 탄핵정국 만든 ‘최순실 사건’ 언론은 무슨 짓을 벌였나”
『미래한국』 540호 (2017. 1. 11)

배진영·김태완·이상훈, “최순실 사태 25개 사례로 본 허위·과장·왜곡보도”
『월간조선』 2017년 3월호

p.22-23사진 : 코리아넷·해외문화홍보원(청와대), President Park Geun-hye attends a dinner
marking the 60th anniversary of the Korea-U.S. alliance,
<https://www.flickr.com/photos/42438955@N05/8724311143/>(2013. 5. 7)

p.26-27사진 : 코리아넷·해외문화홍보원(청와대),
President Park at Smithsonian Museum gala banquet,
<https://www.flickr.com/photos/42438955@N05/8725430880/>(2013. 5. 7)

p.29 사진 : Mark Wilson/Getty Images North America,
“Barack Obama Talks With Park Geun-Hye”,
<http://www.zimbio.com/pictures/r4rSNV5Guyg/Barack+Obama+Talks+Park+Geun+Hye>
(2013. 5. 6)

메 모

대한애국당 당원가입·후원 안내

대한애국당 당원가입은 대한애국당 공식 홈페이지(<http://gkpp.or.kr>)
또는 전국 시·도당 및 서명대, 태극기집회 집회 장소의 대한애국당 입당처에서 가능합니다.

당원의 후원 : 대한애국당

당비납부 계좌: 월 약정 당비 및 특별당비

(금액 한도 없음. 당원만 가능)

■ 신한 100-032-436714 (대한애국당)

非당원 후원 : 대한애국당 중앙당 후원회

누구나 후원 가능. (연 500만원 까지)

■ 농협 301-0761-0815-21

■ 신한 100-032-436971

어떤 훌륭한 정책도 올바른 정치가 전제되어야 시행될 수 있다.

대한애국당의 모든 당원은 당직과 공직을 당과 국가가 불러낸 봉사자이자 헌신의 기회로 여기며,

올바른 정치를 통해 깨끗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 데 헌신할 것이다.



대한애국당

가짜뉴스, 탄핵을 선동하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사기탄핵의 진실

지은이 대한애국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

발행인 대한애국당

인쇄소 (주)한빛인쇄(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 106-36, 장항동) 031-906-8591

발행일 2018년 11월 29일